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소속	경제전략 연구본부	성명	김민수	직급
	소속	소속	경제전략 연구본부	성명	박예나	직급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Arctic Frontiers 2024 정부대표단 참석 ○ 관련사업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 (사업기간 : 2024.01.01. ~ 2024.12.31.) - 해양수산부 수탁(「2024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 계약(계약체결 예정) 후 일부 예산(김민수 본부장 출장비용) 집행					
출장기간	2024. 01. 27.(토) ~ 2024. 02. 03.(토) (7박8일)			출장지	국가명 (도시명)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1.27.(토)	부산(07:55)→서울(10:55) →암스테르담(20:40)→오슬로(22:25)		항공 이동 (오슬로 1박)		KE1410(부산→서울) KE925(서울→암스테르담) KE6433(암스테르담→오슬로)
	01.28.(일)	오전: 오슬로(09:45)→트롬쇠(11:45)		항공이동		SK4414(오슬로→트롬쇠)
	1.29.(월)	트롬쇠		오전: NPI 방문 업무협의		
				오후: NPAC 운영위원회 사전회의 및 세션 참석		
	1.30.(화)	트롬쇠		오전: 프리쇼프난센연구소 업무협의		
				오후: Arctic Frontiers 출장단 업무협의		
	1.31.(수)	트롬쇠		오전: Arctic Frontiers Big Picture Session 참석		
				오후: NPAC 운영위원회		
	2.1.(목)	트롬쇠		오전: AEC 면담		
				오후: Arctic Frontiers 사무국 면담		
	2.2.(금)~2.3.(토)	트롬쇠(08:45)→오슬로(15:00)→런던(18:50)→인천(+1/16:05)→부산(18:25)		항공이동(비행기 1박)		SK4409(트롬쇠→오슬로) SK809(오슬로→런던) KE908(런던→서울) KE1415(서울→부산)

출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목적 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원 MOU 기관(Arctic Frontiers, 프리쾰프난센연구소)과의 업무협의로 연구 및 북극 협력주간의 협력 확인 - NPAC 운영위원회를 위한 사전 의제를 정하고 2024년 NPAC 개최를 위한 논의 - 극지협력대표 이하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북극경제이사회 면담 및 Arctic Frontiers 사무국 면담 진행. 옹서버 국가로서의 협력 방안 논의 - Arctic Frontiers 주요 세션 참가로 최근 북극 이슈의 논의 동향 등에 대한 팔로업 - 외교부 한-캐 면담 및 SAO observer meeting 등 사전 지원 ○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타진, 북극프론티어 사무국장의 면담을 통해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프론티어 사무국장이 참석을 약속하였으며, 북극 프론티어 연계 학생들의 북극협력주간 초청 등을 논의 - NPAC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4년 NPAC 주제 및 KMI 특별세션에 대한 방향성 구체화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사업」 최종보고서에 'Arctic Frontiers 2024' 참석결과 제출 및 유관기관과 공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캐 양자 면담 및 SAO Observer meeting의 협의 내용 등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등 한국의 북극 전략 및 정책 내 북극권 국가와의 양다자 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참고 가능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1월 29일(월) 오전 NPI 방문 업무협의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 방문 업무협의 - 일시/장소: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 참석자: Camilla Brekke(NPI 소장), NPI 운영진 2명, 김근령 사무관(해수부), 신형철 소장·정지훈 실장·김선빈(극지연구소), 박예나 전문연구원(KMI)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NPI 소개 및 연구 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북극연구소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0,000,000 크로너의 자금과 외부 연구 프로젝트 진행 - 북극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기관 - 남극과 Bouvet 섬을 담당하는 환경국이기도 함 - 노르웨이 스발바르 연구소의 연구 코디네이터이며, 호스트 - 로지스틱스도 담당함 ○ 북극과 남극에서 NPI는 연구의 확장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과 남극에서 거대한 국가프로젝트를 진행 - 노르웨이와 UIT, 노르웨이와 UIT, Norwegian Arctic University, 및 Marine Research Institute의 협력으로 연구선 및 관측소 설립 - 북극과 남극에서의 종합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 ○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력을 통한 북극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자금과 외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연구 자금을 위한 경쟁 필요 - 북극 연구를 넓히고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력 강화 방안 계속 모색 ○ 과학연구의 예산 감소로 인한 효과적 지출과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감소로 효과적·효율적 연구 과제가 필요함 - 과학연구에서 공동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중요성 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업무②	1월 29일(월) 오후 Can the High Seas Treaty Cure Arctic Governance? (Side Event) 참석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Arctic Frontiers 2024 "Can the High Seas Treaty Cure Arctic Governance? " 세션 참석(side event)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 참석자: 김민수 본부장· 박예나 전문연구원</p>
수행결과	<p>□ Can the High Seas Treaty Cure Arctic Governance? (Side Ev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토론자: Lawson Bringham 월슨센터 글로벌 펠로, Vito De Lucia 노르웨이 해양법센터 (NCLOS) 국장, Gunnar Sander 노르웨이 수자원 연구소(NIVA) 선임연구원, Christian Prip 프리쾰프난센연구소 선임연구원, Mario Acquarone AMAP 사무국 부사무국장 등 ○ 국가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BBNJ 조약이 2023년 6월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 조약은 현재 복잡한 지정학적 정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다자조약의 성공작이라 할 수 있음 ○ BBNJ 조약이 완성되었으므로 중앙북극해(CAO)의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에는 해양보호구역(MPA) 채택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CAO의 거버넌스 체계, 다른 관련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북극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재형성할 수 있음 ○ (Lawson Bringham) High Seas Treaty(BBNJ)가 북극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논의하였으며, 북극해에서 해양 이용과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북극해의 특성, 국제적 협약 및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원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 강조 ○ (Vito De Lucia) 새로운 High Seas Treaty는 해양보호구역(MPA)과 해양 기반 관리 도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북극해 보호와 관련된 복잡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MPA의 정의와 북극해에서 보호구역 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보호구역이 북극 거버넌스 및 생태계 접근방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언급. 또한 이 조약이 북극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호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북극해의 복잡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와있다고 강조 ○ (Gunnar Sander) 환경영향평가(EIA)와 같은 도구들이 어떻게 활동의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지 제시. 조약과 서로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와 협력 강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 언급 ○ (Mario Acquarone)생태계 기반 관리 구현에 필수적인 지식 접근과 과학협력 문제를 제시. AMAP 부사무국장으로서 △북극의 기후변화, △오염물질, △인간 활동의 영향 평가, △과학 기반 정책 권고 제공에 대한 AMAP의 역할을 제시. AMAP이 어떻게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관련 과학질문에 답하며,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과학적 평가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 이러한 평가는 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과 함께 북극 관련 회의와 국제 협약에 기초 자료로 사용. AMAP의 작업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보존 및 사용에 대한 국제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Christian Prip) BBNJ와 다른 국제 프레임워크 및 기구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협약이 세계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공백을 메우며, 다른 국제협약이 다루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 해양의 절반 이상을 커버함을 강조. 협약은 다른 관련 법적 수단 및 프레임워크를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하며, 국제협력과 조정의 중요성 강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1월30일(화) 오전 프리쇼프난센연구소 업무협의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프리쇼프난센연구소 업무협의 - 일시: 2024.1.30. 11시~ - 참석자: Arild Moe(프리쇼프난센연구소), 김민수 본부장·박예나 전문연구원(KMI)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및 러시아 전문가와 소통 및 연구 참여 중요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쇄빙 컨테이너 기술 연구 주도 필요 ○ 러시아와 아시아 간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전망 ○ 그 외 연구 협력에 대한 논의
업무④	1월30일(화) 오후 Arctic Frontiers 2024 출장단 업무 협의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Arctic Frontiers 2024 출장단 활동 사전회의 - 참 석 자 :외교부(박민수 녹색환경외교과), 해양수산부(김근령 사무관), 극지연구소(신형철 소장, 정지훈 실장, 김선빈 기능원), KMI 김민수 본부장, 박예나 전문연구원, 주노르웨이한국대사관(김윤영 참사관)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Arctic Frontiers 2024 출장단 활동 사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면담시 참석 인원 점검 ○ 기관 방문 계획 확인 ○ 양자 협의회 및 Observer meeting 의제 확인 ○ KMI-KOPRI-주노르웨이한국대사관 협력 방안 논의
업무⑤	1월31일(수) 오전 Arctic Frontiers 2024 BigPicture 세션 참석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Arctic Frontiers 2024 Big Picture 세션 참석 - 참 석 자 : 김민수 본부장· 박예나 전문연구원(KMI),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출장단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Big Picture: Rethinking Arctic Development & Mohn Pr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hn Prize 시상식 - 수상자: Oran Young 교수(북극을 중심으로 국제 거버넌스와 자원 관리 분야를 개척했으며,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 Mohn Prize 최초 과학분야 연구자 아닌 수상자) ※ Mohn Prize: 북극 관련 우수 연구를 위한 국제 Mohn 상(이하 Mohn 상)은 북극 북극 과학 및 문학 아카데미(NNVA), 트롬쇠 연구 재단(TFS), 노르웨이 북극 대학(UiT)이 공동으로 설립한 상으로, 북극과 관련된 우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이사회를 통한 국제 협력의 강조 ○ 북극 정치의 고위험적 상황에서도 북극을 위한 비전 유지 강조 ○ 과학-정치-지역민의 상호작용 및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 협력이 매우 강조되는 상황 ○ 북극경제 개발은 단일 이익 초점에서 다중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 간 공존 필요성이 반영되고 있음 ○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성, 인권, 환경문제, 지역적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 ○ 노르웨이 총리, 산업계, 북극권 도시 시장 등 발표 토론자 참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업무⑥	1월31일(수) 오후 NPAC 운영위원회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NPAC 운영위원회 - 참 석 자 : 김민수 본부장· 박예나 전문연구원(KMI), Charles Morrison(EWC), Oran Young, Lawson Bringham, Gosia, Arild Moe, Miabennet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2024 NPAC 주요 의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 특별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LOS 발효 30주년을 맞아 해양법 특별 세션을 기획 - 현재의 해양법과 북극문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 -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전반적 개념을 다루고, 나머지 패널리스트에게는 특정 북극 법적 레짐에 대한 발표를 하게 하는 계획 - 좌장은 김성진 전 장관으로 하며, 키노트는 David Vandarzwagg ○ 2024 NPAC 주제는 "인프라 스트럭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지역의 인프라와 연구에 대한 고찰 - 인프라의 목적과 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한 고민을 다루어야 함 - 인프라 세션에서는 인프라의 유형과 범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인프라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 해야 할 것 - 기후문제에 대한 인프라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 - 인프라와 관련된 주제와 안보에 대한 논의, 경제적 문제, 북극 기반시설과 관련한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함 ○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원주민· 젊은이들의 의견이 중요하며, 이들을 초청하는 방안 고려 - 인프라 주제에 대한 전반적 개요 세션 필요 - NPAC 구조 결정 후 각 세션의 발표 토론자 등 정할 것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⑦	2월1일(목) 오전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면담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면담 - 참 석 자 : Mads Qvist Frederiksen 사무국장·Irina Zhilina 선임보좌관(AEC), 박종석 극지협력 대표·박민수 사무관(외교부), 김근령 사무관(해수부), 신형철 소장·정지훈 실장·김선빈 기술원 (극지연구소) 김민수 본부장·박예나 전문연구원(KMI)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Mads Frederiksen 사무국장 발언 ○ 북극경제이사회(AEC)는 2014.1월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결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북극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 회원 기업들을 대표하고 사업 자문 및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음 - 북극 지역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희토류·에너지·어류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땅 / 그러나 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기업·은행 등이 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북극 개발 및 원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지장 ※ Frederiksen 사무국장은, 북극이 풍부한 개발 가능성을 내포한 다양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단순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지속 강조 / 한편, EU는 공식 문서상으로는 북극 지역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에서 석유·가스 증산을 요청하는 등 위선적인(hypocritical) 태도를 지적 - 북극경제이사회에 가입된 많은 기업들은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북극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개발, 어업, 원료 생산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수행 중 ※ △상품성이 떨어지는 연어 품종(Pink Salmon)을 걸러내기 위한 AI 기술 개발, △대구(cod)의 껍질을 이용한 화상 치료 테이프, △핀란드·일본이 참여하는 북극해 해저 광섬유 케이블 사업 등 소개 - 현재 아시아 기업들이 가입해있지 않은 만큼, 한국 기업의 가입을 언제나 환영 ※ 포스코(POSCO)가 가입되어 있었으나, 과거 건축 재정 등을 이유로 탈퇴하였다고 부언 <input type="checkbox"/>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극경제이사회 실무그룹 활동 현황 ○ 북극경제이사회는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되는 북극이사회와 달리 러시아 기업과의 연락망도 지속 가동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결 가능 - 다만, 이사회 내 5개의 실무그룹 중 현재 4개의 실무그룹 활동은 중지(paused) <input type="checkbox"/> 한국 기업의 북극 진출 관련 ○ 북극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는 △바이오 △조선 △원자재(희토류 등)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코로나 검진키트 제작, 혈압약 제작 등 다양한 성과를 내는 만큼 큰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으며, 한국이 조선 강국인 만큼 관련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 북극경제이사회의 구체 지원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송부하고, 관심 있는 기업이 연락해 오는 경우 양자 면담 등을 주선하고 있음 / 만약 기업이 이사회 회원이 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 - 이사회는 북극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상당한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서, 회원의 특정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서면 지지(policy advocacy)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실무그룹을 통한 네트워크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지원 ○ 극지연구소 등과의 협력 방안) 석사 학위 과정 등 다양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며, 한국 측이 제안한 대로 이해당사자 간 정기회의 등에 열린 입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업무⑧	<p>2월1일(목) 오후 Arctic Frontiers 사무국 면담</p>
수행계획	<p>□ Arctic Frontiers 사무국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Anu Fredrikson 사무국장, Morten Hoylo·Jenny Turton 사무국 직원(Arctic Frontiers), 박종석 극지협력대표·박민수 사무관(외교부), 김근령 사무관(해수부), 신형철 소장·정지훈 실장·김선빈 기술원(극지연구소) 김민수 본부장·박예나 전문연구원(KMI)
수행결과	<p>□ 북극 프론티어 준비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derikson 사무국장, 북극 프론티어는 비영리단체이며, 노르웨이 외교부, 지방 정부, 대학교, 연구소 등 파트너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함 - 매년 행사 후 파트너 등을 통해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차기 행사의 주제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며, 독립된 기관으로서 주제 등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관여하지 않음 - 러시아 참여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노르웨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과학자 개인의 참여 및 협력은 허용되나, 기관 간 협력은 불가한 상황 <p>□ 북극 협력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대표, 북극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 문의한 데 대해, Frederikson 사무국장, 북극 지역의 핵심 현안은 해운과 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래 언급함 - 북극 항로는 다른 항로에 비해 단거리로 해운이 가능한바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며, 최근 지정학적 상황 등으로 캐나다 정치권 등에서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 항로(northwest passage)를 대안으로 고려 중으로 알고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도 향후 동 항로가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 -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일정 필요사항에 부합해야 하는바, 한국의 우수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조선 기술을 이용한 협력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

□ 북극협력주간 관련

- 올해 북극협력주간에 Frederikson 사무국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Frederikson 사무국장, 본인의 올해 일정을 조율 중이나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Turton 보좌관, 북극 프론티어와 연계된 학생들이 북극협력주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동 행사에 많은 학생 및 과학자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제안

□ 美 대사관 트롬쇠 상주

- 미국 대사관에서 트롬쇠에 직원 1명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배경을 질문
- Frederikson 사무국장, 미측은 트롬쇠에 美 핵잠수함 운항 등 관련 리스닝 포스트 (listening post)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을 상주하고 현재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사건으로는 지정학적 상황 등으로 트롬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